

미래의 학교도서관

김 동 철

<보성고등학교 사서교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 몸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다. 회사나 관공서 그리고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 까지도 이들의 신속한 정보를 얻으려 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서 뒤 처지게 되는 낙오자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에 임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가 점점 그 위치를 잡아 가고 있다.

그것들 중 우리들 주위에 가장 인접해 있으며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이란, “모든 정보자료를 의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인류에게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사회문화를 유지 발전케 하는 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수행하는 정보통괄의 사회적 교육 기관이다”라는 정의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도서관의 그 역할은 이들 최신 정보를 갈구하는 요구자들의 갈증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풀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가장 건설적으로 담고있는 정장고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며, 또한 그 위치가 중요시 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 해야하며 도서관에서 어떠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혀 숙달되지 못한 도서관 이용에 주저하고 있고, 이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것은 생각컨데 어릴적부터 도서관에 대한 인식 잘못으로 오는 것과 도서관 이용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때문이라 알고 있다. 단지 “도서관은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며 선생님의 감독하에 밤늦게까지 꼼작않고 끊임없이 단어를 외우고 수학문제를 풀어나가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그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진정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보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이니 정보습득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생활 방식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좌충우돌, 당황하게 하며,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자연스런 자료 이용과 정보 습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과 도서관의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가장 능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회에 적응력이 빠른 예비 사회인을 키우는데는 도서관의 역할과 그것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을 함께 병행 발전 시켜야 한다.

이것은 현 학교도서관의 깊은 문제들의 해결과 혁신이 없고는 전혀 불가능 하다고 본다.

1. 오히려 후퇴하는 학교도서관의 실정

입시경쟁 과열로부터 오는 도서관의 입시준비 독서실화로 인해 도서관 서고는 거미줄이 나르고 또한 묵직한 자물통으로 그 문은 잠겨져 있으며, 새로운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은 전혀 무관인양 학교의 지원 미비로 학교도서관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어느 학교에서는 “가을을 독서 주간이니 학생들에게 더욱 입시준비나 기말고사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라는 학교장의 직원회의석에서의 지시에 식상하지 않을수 없다. 학생들의 정서나 건강, 그리고 인격적 도야는 아예 뒷전이고 고유의 학교교육지표를 전혀 무시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어떤형의 사회인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학교에서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은지가 오래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말 그대로 공부방만이 존재할 뿐이다.

도서관이 학교의 상징이 되며,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키우며, 가꾸는 장이 될때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교육도 정상화 되어진다고 믿는다. 이것은 국가적 국민적 차원하에서 관심과 지원없이는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표현으로 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싶다.

2.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볼때 가장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도서관이 하고 있으며 학문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팔목상대할 만큼의 많은 성장및 발전을 거듭했다고 본다.

대학교가 도서관의 규모면에서나 활동면에서 어느정도인가의 척도에 따라서 그학교의 수준을 평가 받을정도로 대학교도서관은 대학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에비하면 학교도서관은 어떤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로지 학생들을 도서관에 집단으로 넣어 놓고 교사의 엄한 감독하에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 밖엔 의미가 없다. 그래도 과거에는

학교도서관의 활동은 보장되었고 지금처럼 앞 뒤가 막힌 처지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학교측이나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도서관의 기능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 든다. 물론 요즘처럼 입시전쟁이 심화되어 있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때가 요즘과 비교해 볼 때 교육적 차원이나 교사의 학습태도및 방법이 모자라거나 부족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알찼으며, 정서적·육체적으로나 인격수양의 장으로도 더 앞섰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되게 하고 인격을 쌓게 하고 체력을 닦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주며,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사고력을 길러 주는 그런 참된 교육이 과거의 학교교육이 아니었나 한다.

학교도서관이 공부방으로부터 자료 열람실이 되고, 시청각실이 되고, 자유 열람실이 되고, 그리고 여유있는 서고(書庫)로 탈바꿈을 할 때 그에따른 올바른 학교교육의 장도 열린다고 본다. 학교도서관이 정상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서관이 된다는 것이며 더 이상 쇠퇴되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며, 참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서관이 된다는 것이다.

3. 학교도서관의 미래형은

현재 학교도서관은 공부하는 곳과 책을 대출해 주는곳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좀 나은 곳이 있다면 독서지도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몇몇 학생에 한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것이 전부이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교육·정보및 자료 제공, 미적감상과 조사연구 그리고 레크레이션과 향토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학생들이 학업의 연장으로 자기수양과 학습연마의 장(場)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역할을 학교도서관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상 전혀 그렇지 못함이 학교도서관의 실정이다. 물론 새로운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문제도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은 계속 성장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후퇴함이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학교도서관이 대학도서관만큼은 성장과 그 발전속도를 요하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야 함이 정상이다. 이것은 문명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요구인 것이다.

(1) 독립건물의 도서관

어디를 가나 학교도서관은 일반 교실과 더불어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 옆에 음악실이 있고, 실험실이 있고, 체육실과 교실이 있다. 이렇듯 먼저 도서관 환경에서부터 섬수를 줄 수가 없다. 시끄럽고 산만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며, 공부가 되며 자료습득이 가능 하겠나 싶다. 요즘 새로 건축하고 있는 신축 학교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계상의 위치를 부여 받고 있다. 이것은 마치 어쩔수 없이, 마지 못해서 도서관 자리를 마련해 주는 느낌을 아니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 학교교육의 개선과 함께 학교도서관의 과감한 투자와 개혁이 없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그 의무의 공백을 남기게 될것을 확신한다. 학교도서관은 반드시 독립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도 대학교 못지 않게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대학교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영원히 전락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2) 도서관 이용지도와 독서지도.

현재 각 학교에서는 도서관 이용 지도와 독서지도 를 위해 따로 시간을 할당 하거나 이것을 감히 시도 하려 생각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학생들은, 우리 人間이 평생토록 활자문명과 함께 항상 새로운 정보와 자료의 습득 욕구에 젖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때부터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몸으로 익혀나가야 함을 교육 받아야 하며 그런 후에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아가서 사회로 진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밟은 그들은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것이며 지적이고 교양을 갖춘 人間으로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학교의 독서지도와 도서관 이용지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적인 것이 되겠다. 글을 쓰고, 추리하며, 생각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한 자유인으로서, 자기의사를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의 바탕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소위 전인교육은 실천될 수가 있다.

(3) 계속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학교도서관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퇴보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교육자의 방관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어느것이 최선의 교육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학교교육운영인가를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타성적이고 방관적인 미온한 태도에서 학교는 학교의 참면모가 사라지고, 학교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관이나 전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거기에 연유하여 학교도서관도 설 땅이 없어졌으며 서 있을 명분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 되었다.

「S·R Ranganathan」의 도서관이 5개법칙중 5번째로 “도서관은 계속 성장하는 조직체이다”라는 정의를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학교도서관은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은 현상유지에 급급해서도 안되며 더더구나 후퇴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본다. 항상 개선되고 새롭고, 발전과 성장하는 조직체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며,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로 발휘 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전체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며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육성에 또 다른 변화의 개혁이 이룩되지 않으면 현 학교도서관의 어둡고 긴 터널은 결코 통과 하지 못한다.

(4) 종합관으로서의 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그리고 공부방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했다고 하기엔 너무 협의의 도서관이 되어 버린다. 실지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것 외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지도와, 각종 집회와 전시회를 주최하며 시청각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간접경험과 사회성의 식견을 높여주는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향토자료관, 박물관, 그리고 학교전통관 등을 주관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학교교육의 중심 메카로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연구활동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에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관중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도 종합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세인들의 인식과 개념을 바꿔 놓을 수 있겠다 싶다.

구구한 이야기를 아무리 늘어 놓아도 그 뜻을 이해 못하면 안한것보다 못하다. 학교도서관이 왜 제 자리를 찾아야하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의 학교도서관의 할 일과 그 역할을 평소에 가슴에 담고 있던 것을 몇가지 열거하였다. 그러나 나와같은 생각과 안타까움을 분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그들의 열의와 후원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확신한다.

현 시대에 도서관의 필요성과 그 이용성 그리고 도서관의 성장성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학교도서관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나갔다. 분명한 것은 학교도서관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는 몇몇의 짐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은 계속 성장하는 조직체이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6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 (“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